"꼭 투표합시다"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선관위 회의실에서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인터넷상의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과 젊은 유권자의 투표 참여 촉진을 위해 활동할 '사이버 참 선거 도우미' 발대식을 가졌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공립 다문화 학교 광주 내년에 개교

광주지역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공립 대안(代案)학교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문을 연다.

광주시교육청은 30일 "언어와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일반학교 진학이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 이주여성 등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공립 대안학교를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에 외국 유학 부적응 학생과 실용음악 특기생을 가르치는 사립 대안학교는 2곳이 있지만 공립 대안학교는 처음이다.

특히 다문화 가정 자녀를 임시교육하는 광주 '새날학교'가 법적 토대가 없어 운영 등에 큰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하면, 이 대안학교는 다문화 가정의 교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 교육청은 '새날학교' 부지인 광주시 광산구 삼도남초교를 리모델링해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년당 1학급 20명 안팎으로 모두 12학급 규모로 설립될 예정이다.

공립이지만 직영보다는 외부 전문가 단체, 법인 등에게 위탁하는 방식이 유력하며, 위탁시 인건비, 운영비 등 연간 15억원 안팎이 지원될 예정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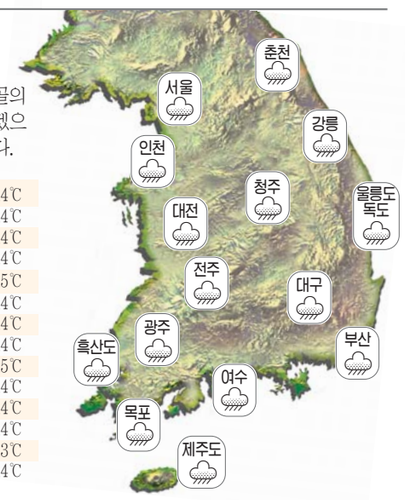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6시 21분 해짐 18시 53분 달뜸 20시 26분 달짐 06시 32분

우산 챙기세요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겠으며 돌풍이 부는곳도 있겠다.

광 주	흐리고비	11/14℃
목 포	흐리고비	10/14℃
여 수	흐리고비	9/14℃
완 도	흐리고비	9/14℃
구 례	흐리고비	7/15℃
해 남	흐리고비	9/14℃
장 흥	흐리고비	9/14℃
고 흥	흐리고비	9/14℃
순 천	흐리고비	7/15℃
영 광	흐리고비	10/14℃
진 도	흐리고비	9/14℃
전 주	흐리고비	10/14℃
남 원	흐리고비	8/13℃
흑산도	흐리고비	10/14℃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1.5m
먼바다	남~남서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남동~남	1.0~2.0m
먼바다	남~남서	1.5~2.5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황사지수
주의	낮음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1.5m
먼바다	남~남서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1.5~2.5m
먼바다	남~남서	2.0~3.0m

	밀물	썰물
목포	02:51 15:02	08:02 20:15
여수	09:46 22:15	03:37 15:45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목)	2(금)	3(토)	4(일)	5(월)	6(화)
날 씨						
최저/최고	12/14	5/14	3/17	5/17	7/18	7/18

문성중 9시까지 야간학습

4월부터 심화반 등 편성 … 봉선동 학원가 '긴장'

'광주 사교육 1번지' 남구 봉선동에서 사교육과의 전면전을 선포〈본보 3월 22일자 6면〉한 문성중학교가 오는 4월부터 밤 9시까지 야간학습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30일 문성중학교에 따르면 '사교육 없는 시범 학교'로 지정된 문성중학교는 지난 23~25일까지 3일간 2010학년도 학부모 설명회를 열고 방과후 야간학습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학부모 설명회에는 평소 300명 안팎이 참여하던 것과는 달리 전교생(980명)의 숫자와 비슷한 900여명의 학부모가 참석해 야간학습 실시에 대해 매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설명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학교측이 제시한 정규수업 이후 ▲밤 9시까지 야간학습 ▲매일 2시간씩 보충수업 ▲정규수업만 진행하는 안 등 3가지 안 중에서 밤 9시까지 야간학습을 진행하는 안에 적극 찬성했다고 학교측은 밝혔다.

이에 따라 문성중은 4월 12일부터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등 5개 과목 위주로 야간학습을 시행할 계획이다. 학업 성적에 따라 심화반과 교과반, 멘토반, 자율학습·예·체능반 등으로 나누고, 특히 하위권 학생이 대상인 멘토반은 소수 정원인 5명 단위로 1개반을 구성해 집중 학습을 할 방침이다.

문성중은 다만 참여 여부는 철저히 학생과 학부모의 자율에 맡기고, 5개 과목에 대해서도 학생별 선택수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봉선동 인근의 나머지 6개 중학교(학생 4천여명)도 문성중의 야간학습 시행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문성중이 성적 향상 등 효과를 거둘 경우 야간학습을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문성중의 야간 자율학습을 놓고 교육과학기술부와 광주시교육청 등에 강력 항의했던 봉선동 학원(213개)가는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오는 7월부터 광주지역에서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이 전면 금지될 예정인데다 문성중을 시작으로 주변 학교가 밤 9시까지 야간학습을 실시할 경우 학원 영업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시티투어버스 금·토·일 운행

11월까지 요금 1천원 명소 20여곳 3개 코스

광주지역 관광명소를 저렴하게 둘러볼 수 있는 시티투어버스가 다음달 2일부터 11월28일까지 매주 금·토·일 운행된다.

광주시는 지역을 방문하는 외지인과 시민들을 위해 무등산, 시립민속박물관, 우치동물원, 빛고을국악전수관, 빛고을노인건강타운, 국립광주박물관, 국립 5·18민주묘지 등 20여 곳의 지역 명소와 전남지역 관광지를 중심으로 계절마다 요일별 3개 코스를 선정했다. 화순 운주사, 나주 영상테마파크, 담양 죽녹원,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무안 회산백련지, 장성 홍길동테마파크, 곡성 옥과미술관 등도 코스로 편성됐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광주세계광엑스포, 세계김치문화축제, 광주충장축제를 찾는 관광객을 위해 행사기간에는 행사장을 경유하는 특별코스도 별도로 매일 운행할 예정이다. 시티투어버스에는 관광가이드가 탑승하고, 이용료는 1인당 1천원이며, 입장료를 내는 관광지는 탑승자가 선택할 수 있다.

시티투어 탑승희망자는 탑승하루 전 오후 5시까지 관광정보센터로 예약(062-233-3399, 942-6160)하고 광주시청 민원인 주차장이나 광주시 서구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에서 시간에 맞춰 탑승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나 광주시관광협회포털사이트(www.gj-travel.or.kr)에서 볼 수 있다.

한편 지난해 3천210명이 시티투어버스를 이용했으며, 광주시는 지난해와 올해 시티투어버스 운영에 모두 1억2천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하늘도 … 새벽부터 비·천둥·번개

광주·전남 최고 80mm

3월의 마지막 날인 31일은 서쪽에서 접근하는 기압골 영향으로 새벽 전남 서해안지방부터 비가 내릴 전망이다. 비는 늦은 오후 잠시 그쳤다가 다음달 1일 새벽부터 다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30일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전남 남해안은 40~80mm,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30~60mm의 강수량을 보일 것"이라고 예보했다. 특히 남해안과 전남 동부지역에서는 천둥·번개와 함께 많은 비가 예상된다.

또 기상청은 3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바닷물의 수위가 높아져 서해안 저지대는 만조 시 침수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보람상조 압수수색

검찰, 고객 돈 100억원대 횡령 혐의

검찰이 국내 최대 규모의 상조회사인 보람상조 그룹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회사 대표가 가족과 친인척 이름으로 여러 개의 계열사를 운영하며 거액의 고객 돈을 빼돌린 혐의를 포착했다.

부산지검 특수부(차맹기 부장검사)는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보람상조 본사를 비롯해 10여개 계열사와 부산 남구 용호동 최모(52) 회장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또 검찰은 최 회장의 형인 최모(62) 그룹 부회장도 체포했다. 최 회장은 현재 가족과 함께 미국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보람상조를 비롯해 장의업체, 병원, 건설회사 등 여러개의 계열사를 가족과 친인척 이름으로 운영하면서 고객이 맡긴 돈을 빼돌려 부동산을 사들이는 등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빼돌린 금액만 최근 몇년 사이 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보람상조 그룹은 16개 계열사를 거느린 국내 상조업계 1위 회사로 회원수만 7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람상조는 광주·여수·순천 등 광주·전남지역에만 3개 지점을 두는 등 전국적으로 50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교육청·EBS 상호교류 양해각서

광주시교육청은 "31일 효과적인 수능시험 대비, 사교육비 절감, 공교육 활성화 등을 위해 교육방송(EBS)과 상호교류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31일 오후 5시 30분 광주시 광산구 소재 운남고에서 열리는 협약식에는 안순일 광주시교육감과 곽덕훈 EBS 사장 등이 참가할 예정이다. 두 기관은 사교육 경감,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다양한 협력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EBS 교재에서의 수능 문제 연계 출제 방침에 따라 지역내 모든 고교의 교육방송 활용 등 공교육 내실화 방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음주운전 삼진아웃' 합헌 헌재 결정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음주운전 삼진아웃'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최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연합뉴스

강간미수 상해만 입혀도 강간상해 처벌 합헌

강간에 이르지 않고 상해만 입힌 범죄자를 강간상해범과 같이 처벌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법 9조1항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정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연합뉴스